홍콩 아시아 식민지 시대의 종지부

1984년 중·영 양국간에 조인된 반환협정 합의문서에 의해 아시아의 마지막 식민지 홍콩이 중국본토에 반환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홍콩의 반환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분단의 기간동안 생겨난 문화적 이질감과 경제적 수준차는 중국에게 민족괴리감을 심어주는 커다란 숙제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의 단계설차로 '1국가 2제도'식의 통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전진은 동아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재 분단의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의 문제에도 적지 않은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이다.

(편집자 註)

◇특별기고◇

"홍콩 반환 협정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대사건"

신 용 철
(문리대 교수·사학과)

Ⅰ. 1997년 중국, 홍콩의 주권회복

전 지구의 4분의 1이나 차지했던 찬란한 대영제국의 마지막 식민지인 국제상업도시 홍콩이 1997년 7월1일 중국에 반환된다. 1984년 9월26일 중·영 양국간에 조인된 반환협정의 역사적인 합의문서가 이를 보증하고 있다.

1984년 9월27일자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중·영 양국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협정은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대사건으로 외국의 지배하에 있던 홍콩의 불행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엄광적으로 이 사실을 평가하였다. 대만문제가 아직 미결로 남아 있긴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통일에 한걸음 더 접근하여 이를 환호할은 극히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치적·문화적으로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동아시아의 거대한 중국이 이로서 1백50년간 지속되어 온 자국내의 마지막 식민지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다. 1840년 팽창하던 대영제국의 군함과 대포의 위력에 굴복하여 이루어진 홍콩의 식민지화는 중국을 침탈하려던 프랑스·러시아·미국·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이 제속해서 중국에 몰려오는 신호와 상징이 었다.

그런데 최근 홍콩반환을 3년 앞둔 시점에서 협정 당사국인 중국과 홍콩충독 간에 일어나는 마찰과 갈등이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홍콩에 거주하는 주민은 물론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1997년의 순조로운 반환과 그 후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들이 논의 되고 있다.

필자는 본론에서 홍콩 식민지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반환협정의 내용 및 영국과 중국간에 벌어지는 대립의 원인과 내용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영국의 홍콩반환은 중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이며 대만 문제 등에 관해 중국이 취할 '1국가 2제도'식의 통일방식이 우리에게도 관심거리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역사적 전진이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과 의미 및 상업관계와 통일에 있어서 한국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영국의 식민지 홍콩과 불행한 역사

홍콩은 확실히 수천년간 자존심 강한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한 서구 침략의 고통스러 역할을 담당했다. 중국에 대한 서구 침략의 역사가 바로 이 도시에서 시작되어 이 도시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은 홍콩의 불행이기도 하고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40년 영국은 아편의 밀수입을 금지하는 중국의 청(1644~1911)정부를 군함과 대포의 위력으로 굴복시켜 굴욕적인 남경조약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근대사에서 중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될 때까지 서구의 침략은 이로부터 계속되었다.

중국은 전문 13조의 이 남경조약 중 제3조에서 홍콩도(香港島)를 영국에게 영구히 할양하였다. 1856년 영국은 다시 영국 선박 "애로우(Arrow)호의 국기를 모독했다는 핑계로 출병하여 중국인의 강력한 저항을 제압하고 홍콩 북쪽의 해안인 구룡(九龍)반도를 영구 조차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침략에 대해 일찍이 칼 마르크스는 뉴욕 데일리 트리뷰(1857년 1월 23일자)에서 "한 영국 관리의 병든 자존심을 복수하기 위해 처욕적인 만행으로 평화로운 땅에 불, 칼, 학폐 및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고 제국주의적 문명 국가들의 야만적 침략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1894년 로빈손 홍콩 총독은 홍콩령의 안전을 위해서 북쪽 해안의 중국 대륙 일부를 할양해줄 것을 중국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대했지만, 다시 영국의 무력에 굴복하여 신계(新界)를 99년간 조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홍콩 지역은 홍콩도를 비롯해서 그 북쪽 해안의 구룡반도와 서쪽의 신계를 합친 지역으로 오늘의 홍콩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 홍콩은 면적 1천20평방킬로미터, 인구 근 6백만, 주민의 98%가 중국인이고, 영국인, 필리핀인들이 일정정도 점유하여 개인소득은 약 1만 7천불이나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파리강화회의나 워싱턴회의에서 중국은 조차지 홍콩의 반환을 영국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홍콩 및 중국인들의 반(反) 영 시위들이 있었지만, 영국군에 의해서 모두 무참히 진압되었다.

2차대전 중 영국이 유럽전선에서 고전하는 사이 일본이 홍콩을 공격하고 점수하여 일시 통치자가 바뀐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45년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의 항복으로 홍콩의 주권은 다시 영국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논리적으로 보아 중국이 주권을 회복해야 할은 당연하므로 중화민국의 장개석 정권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등이 모두 주권 회수를 주장해왔지만, 영국의 거부와 그후 국·공간의 내전으로 홍콩의 영국 조차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Ⅲ. 중국·영국간의 홍콩반환 협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을 장악하면서 홍콩의 문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내전의 고난을 피해 밀려드는 대륙 난민의 경내 진입을 홍콩 당국이 금지시킴으로써 국경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1950년 1월 5일, 새로운 공산권의 승인을 거부한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영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공식 승인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함으로써 영국은 중국과 적대적 교전국이 되었다. 1955년 처칠 수상은 의회에서 홍콩의 영국 지배를 재확인하였고, 1956년 홍콩에서는 중화민국의 국기(청천백일기)를 철거하여 대만 정부와 마찰을 빚게 되었다. 1970년부터 중국어(광둥어)를 영어와 함께 홍콩의 공용어로 사용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74년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1972년 홍콩의 유엔 대사 왕쉬(黃華)는 유엔에서 홍콩과 마카오는 제국주의의 억압하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의 결과이므로 중국 영토임을 강조하였으나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중국과 영국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 제임스 칼라한 전 영국 수상은 중·영 양국은 2~3년 후에 홍콩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처음 언급하였다.

1982년 호요방 당 총서기는 "멀지 않은 장래에 한 국가에 두개의 사회제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만 통일과 홍콩 및 마카오의 주권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하였다. 같은 해 9월 24일 중·영 쌍방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유지를 공동 목적으로 외교교섭을 시작할 것을 합의했고, 10월에 북경 및 도쿄 전 홍콩의 주권회복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데 대해 그때 영국 수상은 "홍콩을 일방하고 조차한 모든 조약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응수하였다. 그 해 12월 중국은 새로운 헌법을 제택하면서 특별행정구 설치를 명시하였다.

1984년 1월 허가둔(許家屯) 신화사 홍콩 지사장은 "홍콩의 주권회복 후에도 50년간은 자본주의제제를 변화하지 않는다"고 언명하였다. 여러해에 걸쳐 중·영 양국은 지루하고 어려운 줄다리기 협정을 계속하였다. 영국 '썬데이 타임즈'지는 '영국 정부가 홍콩의 주권 환정권을 전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해 4월 하와 외상은 "1977년 이후도 영국의 홍콩 통치가 계속된다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다"라고 주권 반환을 공식 확인하였다. 6월 등소평은 "홍콩문제가 '1국가 2제도'로 해결된다면 국제적으로 유익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9월 26일 중·영 양국은 북경의 인민대회장에서 홍콩 반환에 관한 합의문서에 가조인하고 공동성명 및 후속문서 3건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서에는 21세기 전반의 홍콩은 '1국가 2제도'를 취하여 50년간 현상 유지를 할것이며 홍콩인들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3원칙이 들어 있다.

등소평은 마카오문제의 해결도 홍콩과 같이 할 것임을 표명하였고 중국 외교사는 "대만 또한 통일 후 홍콩과 마찬가지로 '1국가 2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특히 12월 27일 북경방송은 김정성 북한 주석이 홍콩방식에 따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85년 5월 27일 중·영 양국은 북경에서 홍콩 반환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하고 합의문서가 정식으로 발효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중국 지도자 등소평이 1984년 12월 19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영국수상 대처와 접견하고 있다. 접견후 중·영 양국은 홍콩반환협정 합의문서에 조인했다.

1백50년간 문화적·경제적 이질감 생겨
단계적 통일을 위해 '1국가 2제도'제시

Ⅳ. 반환협정 후 중·영의 갈등

의회가 한 대로 반환 협정문서에 의한 반환 후 홍콩에는 거의 독립적인 특별행정구가 설치되며, 향후 50년간 자본주의제도와 생활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주의제제로의 전환은 서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7년 7월1일 홍콩반환이 임박하면서 중·영 양국간에는 갈등과 대립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것은 1백50년이나 홍콩을 지배해 온 영국이 반환 후에도 그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데 대해,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측의 강력한 반대에서 오는 것이다.

아마도 영국의 마지막 식민지인 홍콩의 마지막 총독이 될지도 모르는 크리스 패튼이 부임하면서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과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려는데서 대립은 날카로워져 있는 것이다.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으로 홍콩에 확고한 민주주의를 심어 놓고 영광스럽게 홍콩에서 철수하려는 영국에 대해, 이것은 공동성명과 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이며 민주화의 구실을 통해 중국대륙에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켜 강력한 중국의 출현을 견제하려는 식민지 통치적 야욕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중국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홍콩 당국의 의회인 입법국 의원 선출에서 현재보다 훨씬 더 직접선출의 비율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식민지 통치자가 떠나면 끝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반환 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가? 그것은 중국의 할 일이지 결코 영국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민주화를 그처럼 홍콩 충독이 급히 서둘러야 한다면, 지난 150년 동안에 했어야 실독력이 있지 반환 3년을 앞두고 그처럼 서두르는 영국의 저의는 확실히 비판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다음은 신공항 건설의 문제이다. 홍콩 당국은 중국과 상의 없이 220억 달러나 소요되는 거대한 규모의 신공항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영국이 떠나면서 홍콩의 재정을 탕진하려는 의도와 영향력의 지속을 추구한다고 공격하면서 중국의 동의 없는 그러한 계약협정 등은 모두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Ⅴ. 홍콩의 반환과 앞으로의 전망

앞에서 본 대로 중국의 홍콩 주권회복은 20세기 말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상징적인 서구 식민지가 사라져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영국이나 중국에 있어서 모두 하나의 시대를 상징하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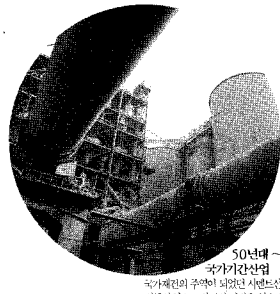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상 가장 어렵던 19·20세기의 식민지배가 끝나는 것이며 21세기에는 이주 홀가분하고 자신있는 당당한 모습으로 현대화를 추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대만문제를 포함한 통일 성취를 향한 하나의 거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중국이 홍콩에 적용한 '1국가 2제도'의 방식은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 폐쇄적인 성격이 짙었던 사회주의 중국에게 항상 자본주의 여러나라를 향한 수출입이나 금융의 관문 역할을 한 홍콩의 변화는 앞으로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제 개방정책으로 상해·천진·대련 등의 항구가 홍콩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홍콩의 민주화에서 보듯이 중국의 정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과거 홍콩의 역할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중국은 지난 49년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 국가 및 대만과의 훌륭한 창구가 되었던 홍콩의 기능을 지속시킬 지도 관심거리이다.

끝으로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은 우리나라에게도 직·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본대로 집일성 주석의 홍콩식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북한의 통일구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 많은 부여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1997년 반환후 홍콩 내의 주민생활의 변화나 중국의 정책 등은 지난 1백50년간 서구화 및 식민화된 자유로운 개방사회를 어떻게 적응시켜 나아갈 것인가? 즉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본국과 매우 다른 방향과 내용으로 달라진 모습에서, 어렸을 때 떼어 놓았던 아이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서로가 느껴야 하는 서력서력한 이질감을 부시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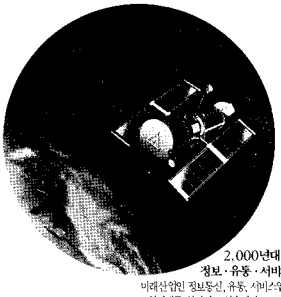
그런 이질감 해소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에 대한 어려움 역시 적지않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식민지 경험을 가진 국가나 사회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홍콩은 최근 많이 거론되는 동서문명의 충돌(또는 조화)이나 반 사생아가 되어 다시 찾은 부모와의 갈등을 함께 겪어야 할 역사와 문화의 사상 유례없는 중요한 시험장이 될 것이다.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기간산업
국가재건의 주역이 되었던 시멘트산업과 식품산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의 핵심부이인 증권, 단자, 보험 등은 거대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경제부국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천년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발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질까요?
그 해답은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미래마인드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꼭 필요했던 시멘트와
식품산업에 한발 앞서 뛰어들었고, 80년대를 이끌었던
종합금융산업의 기치를 누구보다 앞서 내걸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산업으로 압축됩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지켜봐 주십시요.

동양그룹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투자금융·동양화재생명보험·오리온프리토레이·동양매직·동양해운·동양마트·동양창업투자·동양투자자문·동양선물·동양SHL·동양산업기계·동양백토탄·서남재단